

3월의 따뜻한 체온을 전해 줄 사람은 그레이스 켈리입니다.

# IMPRESSION

by 36.5°C



— 제주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깍집'

1°C 3월의 오감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 p18

2°C 귀 기울입니다  
제주도에 지은 11평 내 집 '깍집' p20

3°C 향기륙습니다  
은은한 향기로 항상 우리 곁에 있던 시집들 p22

4°C 채감합니다  
소장 가치 100%를 자랑하는 리미티드 에디션 열풍 p24

5°C 음미합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음식의 자세 p26

6°C 귀 기울입니다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서로 다른 색깔의 공연 p28

7°C 채감합니다  
재기 넘치는 감독 웨스 앤더슨의 신작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p30

8°C 봅니다  
현대미술의 대표 아티스트 줄리안 오피의 국내 전시 p32

9°C 봅니다  
고층 빌딩에 올라 도심 아래를 촬영하는 별난 사진가 이야기 p34



— 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줄리안 오피의 작품 '걷는 사람들'



— 'Walking in Sedang-dong in the rain',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30 × 344.3 cm

## 줄리안 오피가

## 그린 사람들

editor hyeyoung kang

서울역앞 서울스퀘어에는 매일 밤 대형 LED 영상이 차가운 벽면을 밝힌다. 수만 개의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벽은 한 폭의 대형 캔버스가 된다. 영상 속 사람들은 어딜 바빠 가는 건지 무뚝뚝한 발걸음으로 앞만 보고 걷는다. 이 영상은 무한 반복된다. 단순해 보이는 이 영상은 영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줄리안 오피의 '걷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다. 그는 일반적인 페인팅 외에도 이 같은 LED 작업이나 비닐 페인팅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컴퓨터로 사진을 불러와 드로잉 작업을 하고 색을 결정한 뒤 이를 공장에 보내 50여 개의 색비닐로 출력한다. 이렇게 출력한 비닐을 일일이 오려 대형 나무 판에 초기 드로잉에 맞게 붙이는 방식이다. 인물의 디테일을 최대한 배제한 채 굵은 선과 선명한 색채만으로 표현된 그의 작품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긴다. 국내에서 5년 만에 두 번째 전시를 갖는 오피는 국내 전시를 위해 특별히 의미 있는 작품 4점을 준비했다. 바로 한국의 신사동과 사당동에서 만난 한국판 '걷는 사람들' 시리즈가 그것이다. 한데, 그가 준비했다는 4점의 그림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화끈거림이 느껴졌다.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개개인의 특징을 잘 '캐치'했다. 작품 속 사람들의 절반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통화하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바빠 걸어가고 있다. 화려한 색과 경쾌한 드로잉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그가 그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언가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물론, 작가는 처음부터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가 없음을 밝혔기에 임의로 숨은 뜻을 정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 본 오늘의 우리 모습은 신선한 반면, 잔했다. 그의 그림이 가볍지 않은 건 그 때문 아닐까. 이 밖에 LED 영상 작품과 두상을 레진으로 빚은 조각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 3월 23일까지 선보인다.

8°C

: 봄 니 다



(좌) 'Walking in Sinsa-dong 3',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20 × 233.6 cm



(우) 'Walking in Sinsa-dong 2',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20 × 233.6 cm